

민선 7기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무산되나

도시철도 2호선·현대차 투자유치 등 대형현안에 밀려 시 “내년 세계수영대회 기획사업... 시기상 불가능할 듯”

광주시와 광주신세계가 추진했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선 7기 들어 무관심 속에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도시철도 2호선·현대차 투자유치·아름산 개발사업 등 대형 현안들에 밀리면서 광주 유일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아예 물거품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지난해 2월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과 함께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당시 광주시는 수정계획안을 보완해 줄 것을 신세계 측에 요구했지만 신세계 측은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제출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현안에 이르고 있다. 신세계 측은 인근 중소상인들의 반대로

특급호텔 사업보다 복합쇼핑몰 논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 쏠린 데다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이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 점도 한 이유로 보인다.

전임 운영현 시장이 그동안 몇 차례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 특급호텔과 관련해 광주시나 신세계 측 움직임은 없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다른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이용섭 시장이 당선된 후 꾸려진 광주혁신위원회에서도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관심을 끌지 못했고 현안 브리핑에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혁신위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가 “미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급호텔 등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제안을 하는 것에 그쳤다.

광주시는 현재도 신세계 측 지구단위계획 제출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세계수영대회 개막에 맞춰 기획된 사업인데 이미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특급호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접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서울에서 신세계가 추진한 대형 호텔이 2곳이나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어서 지방 호텔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과 무엇보다 지역 중소상인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등으로 신세계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 관광업계는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놓치면 안 된다”며 여전히 특급호텔과 대형 쇼핑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광주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광주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전국 꼴찌 수준인 광주의 관광 인프라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외지인들이 와서 자고 먹고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현재 서구 광천동 이마트를 허물어 그 자리에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짓고 특급호텔과 백화점을 입점시킨다.

현재 백화점 건물은 터미널 내 유스퀘어와 연계한 영(YOUNG)관으로 운영하고 이마트는 인근에 새로 짓기로 했다.

전임 운영현 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지만 일부 중소상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중단됐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시 정책·제도에 인권영향평가 실시

전국 최초... 조례부터 공공건축물·투표소 모니터링 등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등 6건 개선 권고

광주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 유무를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행정의 근거가 되는 정책이나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시행해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7월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를 우선 조례제정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입하고, 향후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조례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조례시행 후 2년이 경과돼 입법목적 등이 실현됐는지를 평가하는 ‘광주시 조례사후 입법평가’와 연계해 현행 조례 90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실시, 41건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364개 투표소 중 노후 건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곳, 지난해 대선 대비 변경된 투표소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하는 데 문제가 예상된 곳 42곳

에 대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를 통해 지하나 지상 2층에 있는 투표소 6곳, 출입구에 계단이나 급경사가 있어 보장이 필요한 투표소 8곳,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보장이 필요한 화장실 11곳 등의 개선의견을 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권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반영토록 했다.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축전문가, 인권전문가 및 활동가,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설계단계부터 사용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인권영향평가는 상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제도 로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많지 않아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평가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행정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전남 시·군의회 회장 선출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지난 13일 제 8대 전반기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강 신임 회장은 이날 전남 22개 시·군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회장선거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얻었다.

그는 지방의회가 개원한 1991년 이후 이번 선거까지 내리 8번 당선된 전국 최다선 의원이다.

부회장에는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 해남군의회 이순이 의장이 선출됐다.

강 신임 회장은 “민의를 대변하고 도내 시군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장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민 기자 3732500@



전남도 농촌체험여행 박람회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재 도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성일 도의원 등이 13일 오후 여수 해양공원 주무대에서 열린 제1회 전남도 농촌체험여행 박람회에 참석해 개막 퍼포먼스하고 있다.

전남도, 전통시장 점포 화재보험료 지원

지역 화폐·상품권 발행

전남도는 15일 대형 화재 우려가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9월부터 보험료의 20%를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예산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다.

전통시장 상인 보험료 지원은 지역 화폐 발행 등과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소

상공인을 위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전남 전통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설시장(75%)은 소유주체인 시·군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만 가입해 상인들이 영업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116개 시장, 8천982개 전통시장 점포를 전수 조사해 화재공제 가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3732500@

광주시, 정기분 재산세 1천606억 부과

전년비 7.2% ↑ ... 이달 31일까지 납부 기한

광주시는 2017년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천60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도 1천498억원 대비 108억원(7.24%)이 늘어난 규모다. 정기분 재산세 상승요인은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분 반영 등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47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구 399억원, 북구 396억원, 남구 209억원, 동구 129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과세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

에 한꺼번에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명품하는 행복하군민

화순군
HWASUN-GUN

화순적벽 버스투어
- 운영기간 : 2018. 3. 24 (토) ~ 11. 25(일) [매주 수, 토, 일요일]



화순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국기명승 제112호]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공덕공덕 설렘화순 버스투어
- 운영기간 : 2018. 3. 24 (토) ~ 11. 24(토) [매주 토요일]

접수방법 : 인터넷 예약 (화순적벽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